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한에 대답

# Zero Carbon Drive



# 목 차

---

1. 왜 Zero Carbon Drive인가?
2.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측정
3. 감축 목표 설정
4. Zero Carbon 관리방안
5. Do the 'Green' thing



# 1 왜 Zero Carbon Drive 인가?

- 금융은 미래 세대 뿐 아니라 지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자산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측정, 관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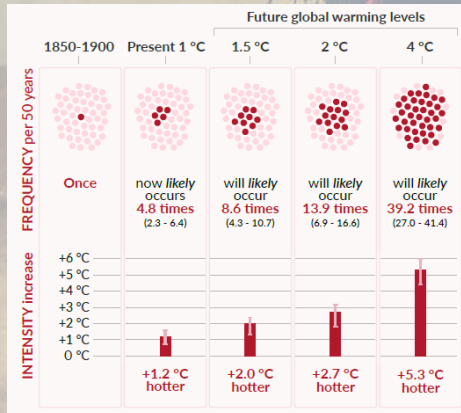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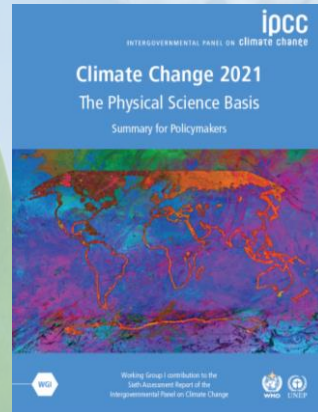
## 탄소는 곧 '인류의 책임'

### 지금 당장 행동할 것!

#### ● 인류를 향한 마지막 경고

“지구 표면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하로 막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 IPCC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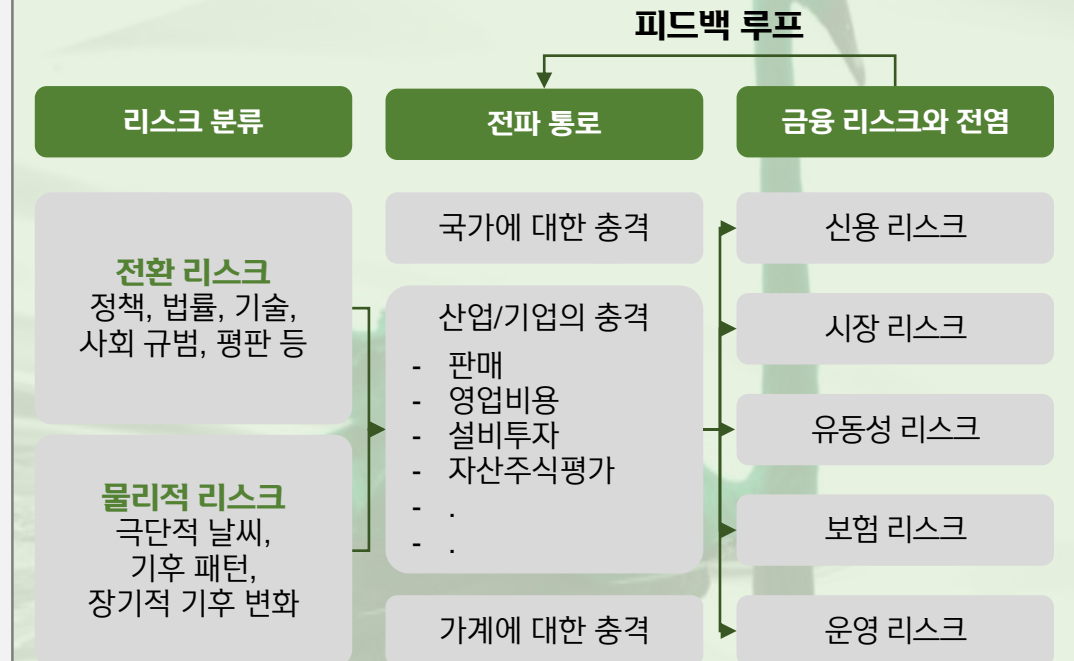
“평균 5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이상 기온이나 기후 현상의 빈도 및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

- IPCC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 탄소는 곧 '위기이자 기회'

### 그린스완\*이 오고 있다!

#### ● 물리적 및 전환 위험의 채널 및 파급 효과 상세



\*BIS – The green swan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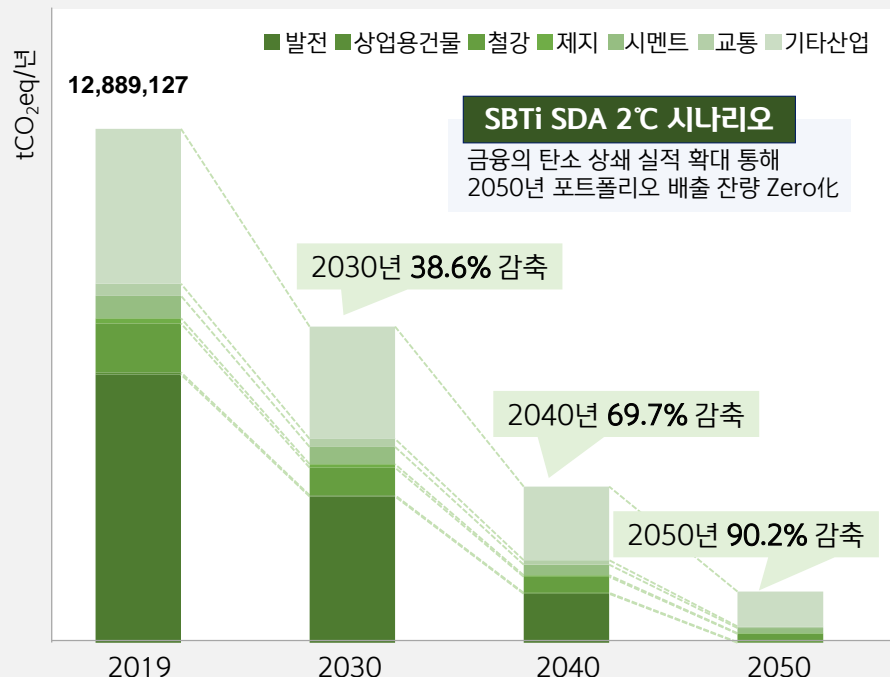
# 1 왜 Zero Carbon Drive 인가?

-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고자 신한금융그룹은 'Zero Carbon Driv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 자체 탄소 배출량은 '43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고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은 '5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업 및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금융에 '20년부터 '30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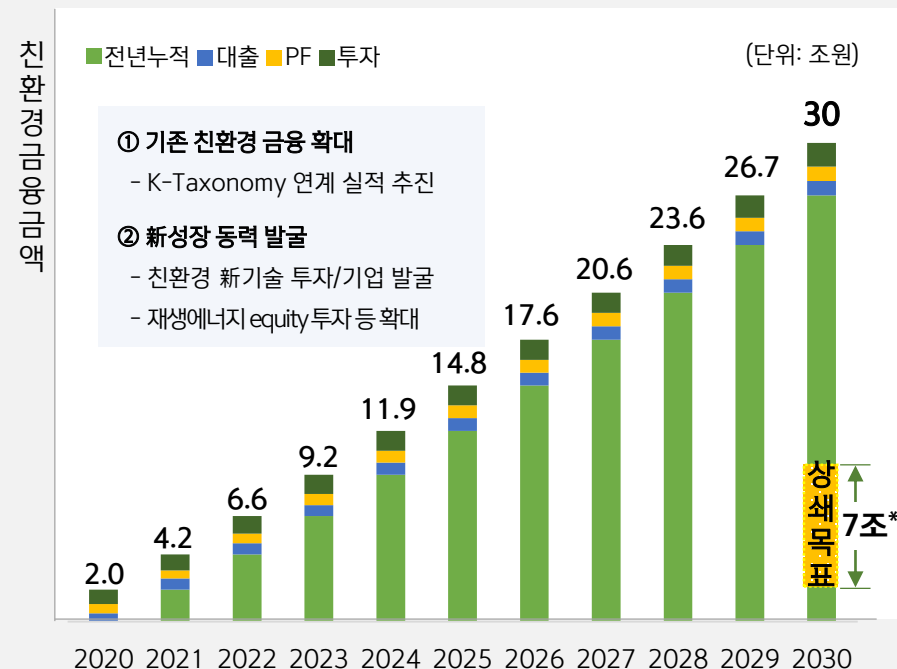
'30년까지 38.6% 감축('19년말 대비), '50년까지 Net Zero 달성



## 친환경 금융 지원 (상쇄)



'30년까지 30조원 친환경 금융 지원 ('20년부터 누적)



\* 상쇄 목표는 태양광/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PF 비중이며, 감축 노력 없이 탄소배출량을 상쇄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음

## 2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측정

### 측정 방법론

2020.10

#### ● 환경부 공개의 공식 배출량 Data 활용 측정

- 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업체 대상 Data 측정  
: 총 1,042개 회사, 전체 배출량 6,300만 톤(tCO<sub>2</sub>eq)

#### ● 이 중 650개 신한외의 거래업체 대상 배출량 별도 추출

2021.09 (Upgrade)

#### ● PCAF 측정 방법론 적용

- 6개 자산 분류를 통한 측정 범위 확대
- 공식 배출량 데이터 활용(S&P Trucost, 환경부 등)
- 배출량 미공개 기업들의 경우, PCAF 기준의 업종별 배출량 Proxy 값 활용



(금융기관의) 자산 탄소배출량  
= 차주의 배출량 X [잔액 /  
(차주의 자본 + 부채)]

### 측정 결과 및 Data 상세

그룹 전체 측정가능한 자산 규모는 약 210 조원 정도이며,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2020년 기준)은 4,687백만 tCO<sub>2</sub>eq

(Unit : 조원, 백만tCO<sub>2</sub>eq)

자산 구분	산출 자산 규모	자산의 탄소배출량
상장주식 및 회사채	46	4,687 (잠재 추정치)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110	
프로젝트 파이낸스	3	
상업용 부동산	23	
모기지	22	
차량 대출	6	
Total	210	

Division	Emission Data
기업 (Equity/Bonds/Loan)	기업의 공시데이터(Data Provider로부터 입수), 환경부의 공개 배출량, 기업의 매출액/자산 규모에 기반한 배출량 추정치 등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별 발전소의 발전량 또는 발전가용량(Capacity) 정보기반 추정
부동산 (CRE, Mortgage)	부동산의 면적 정보 기반으로 배출량 추정
차량대출	차량 모델, 유종(가솔린/디젤 등), 운행 거리 등 기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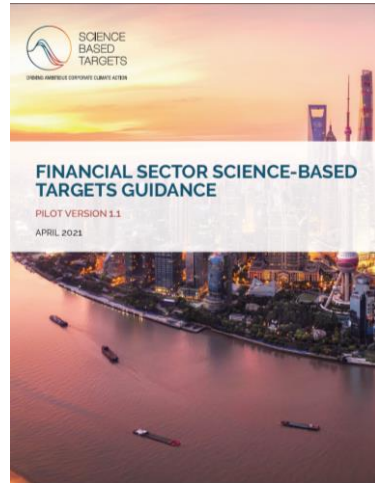
### 3 감축 목표 설정

#### 목표 설정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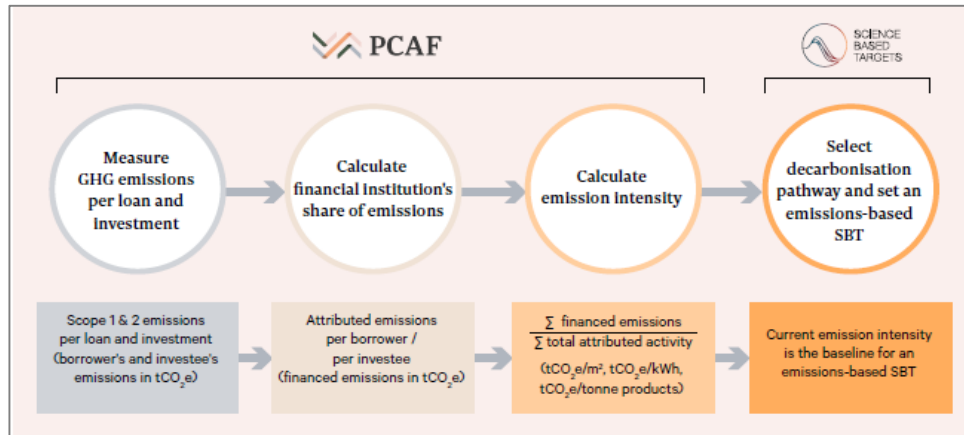
##### ● SBTi 가이드라인 금융회사 방법론

##### Science-Based Targets Guidance (2021년 4월)

- 금융회사는 내부 배출량인 Scope 1, 2 뿐만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인 Scope3 배출량을 모두 포함해야 함
- 금융회사는 자회사 단위의 목표가 아닌 그룹 전체의 총 목표를 설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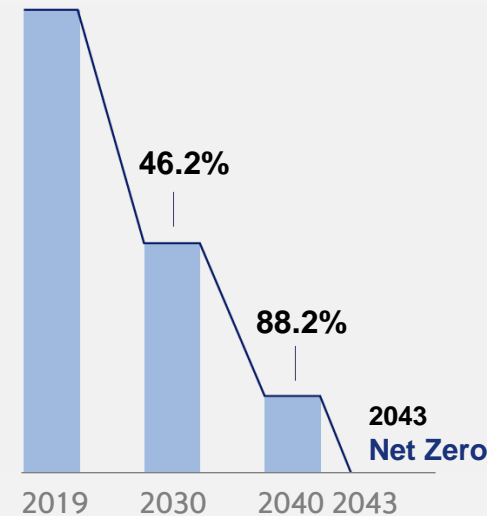
##### ● PCAF와 SBTi의 적용 연결



#### SBT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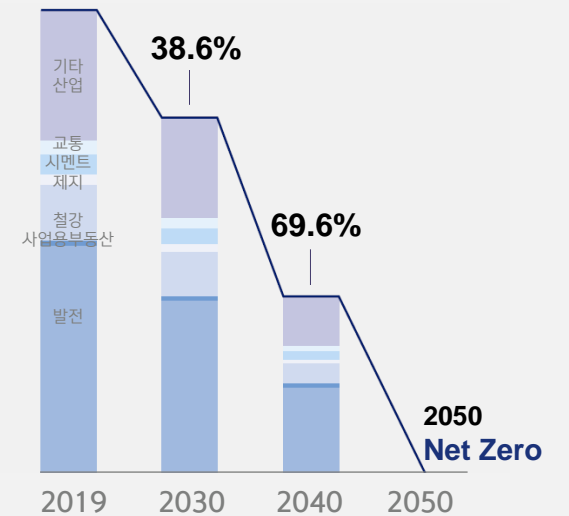
##### Scope1+2

##### SBTi 1.5°C Scenario



##### Scope3 (자산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 SBTi 2°C Scenario



##### ■ 내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방법론 상세

- 기준연도 2019년의 내부 탄소 배출량 : 90,195tCO<sub>2</sub>eq
- 금융기관은 절대량 감축 접근법(the Absolute Contraction Approach)을 활용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 (1.5°C 목표로 연간 4.2%씩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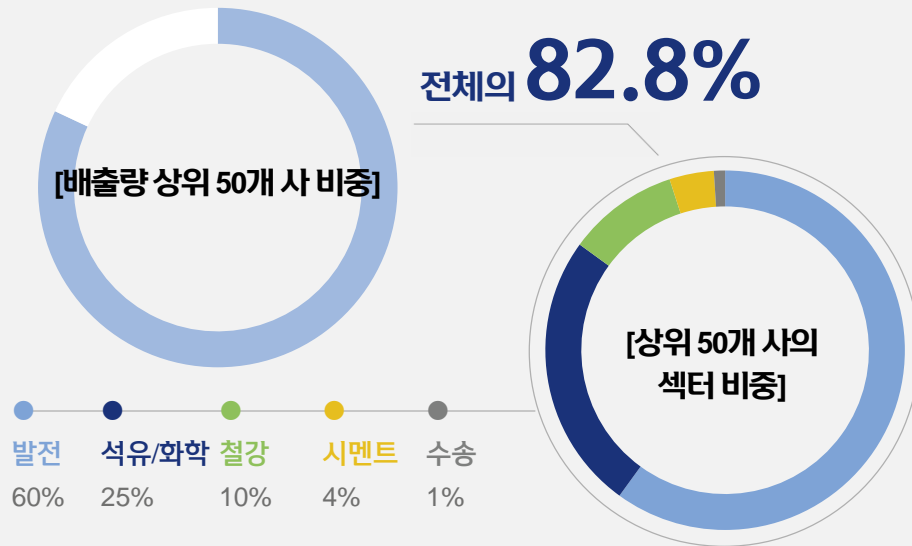
##### ■ 외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방법론 상세

- 섹터별 탈탄소 접근법(the 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을 활용 (well-below 2°C)
- 적용 자산 종류(대출, 주식, 채권)
- 목표 설정 섹터 (발전, 철강, 시멘트, 제지, 상업용 부동산, 수송, 기타 산업)

## 4 Zero Carbon 관리 방안

### 고 탄소배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비중 분석

- 탄소배출량 상위 5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배출량 대비 82.8%이며, 그 중 발전 섹터가 60%를 차지
-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의 총 배출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53.9%



- 탄소배출량 및 탄소집약도 상위기업(50개사) 및 발전 섹터 고객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그룹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의 관리 효과 제고
- 탄소 배출 및 탄소 집약도 상위 기업의 친환경경영 전환 기회 발굴

### 탄소집약도\* 상위 기업의 관리 효율성

- 탄소집약도 상위 10개 / 상위 50개 기업 중 ‘시멘트 발전’ 섹터 기업 다수 - 상대적으로 적은 익스포저임에도 주요 모니터링 영역으로 확인
- 집약도 상위 기업의 탄소집약도는 총 평균 대비 15~25배 수준

[탄소 집약도 현황]

(단위: tCO<sub>2</sub>eq/억원)

Top 10



Top 50



Total



0 200 400 600

- 탄소집약도는 신한 그룹사의 배출량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의사 결정 시 주요한 지표로 포함하여 활용
-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녹색 전환의 효율성 증대 도모

\* 탄소집약도 : 억원 당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양



## 4 Zero Carbon 관리 방안

- 신한금융그룹은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전략위원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전략, 정책, 사업 계획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룹 CEO는 기후변화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 4 Zero Carbon 관리 방안

- 신한금융그룹은 탄소배출에 의존하는 경제활동 생태계 전반에 위치한 친환경 전환으로의 기회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저탄소로 전환하는 금융에 있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금융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5 Do the 'Green' Thing

### Zero Carbon D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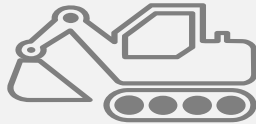
2020년 12월 신한금융그룹은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동아시아 최초의 금융 그룹이 되었습니다.

### 적도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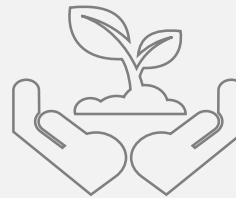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을 도입하여 1,000만 달러 이상의 PF 거래 및 5,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대출에 대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탈석탄 금융 선언



2021년 3월 10일 신한은행은 Zero Carbon Drive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지원 및 석탄 발전소 관련 신규 파이낸싱을 공식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TCFD 리포트 공시



신한은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TCFD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다음해인 2019년 국내 최초로 TCFD 보고서를 대외 공시하였습니다.

## 5 Do the 'Green' Thing

- 2021년 9월 2일 신한금융그룹은 20주년 기념 ESG-Digital Conference 개최하고, 전세계의 Net Zero 달성과 관련하여 글로벌 석학/리더 및 정·재계 주요 인사가 이슈와 시급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논의하였습니다.

###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향해: ESG 경영과 디지털 융합을 넘어



#### Mark Carney UN기후 특사 기조연설, 탄소 중립과 에너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의 흐름을 관장하는 금융업의 역할을 독려

“탄소중립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 ➡ 민간자본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2030년과 2040년으로 문제해결을 미룬다면 기온 상승 억제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향후 10년이 중요한데 기후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대처가 다소 늦었다”

“과거만 하더라도 기후변화 공시 의무가 상당히 부실했는데 신한금융그룹 등에서 자발적으로 공시 의무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음”

“탄소중립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노력, 자금원이 필요”

#### 제프리 삭스 UN 지속가능성장 네트워크 회장 개회 특별연설

“전세계는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을 확보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원과 디지털화에서 큰 역할을 할 거승로 본다. 개도국에 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협력해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가 모범사례로 전파돼야 한다”



## 5 Do the 'Green' Thing

- 신한금융그룹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당국 및 기업들과 손잡고 국내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및 지지 현황

NZIA (탄소중립 보험 연합)	2021년 10월 가입
NZAMI (탄소중립 자산운용 이니셔티브)	2021년 07월 가입
NZBA (탄소중립 은행 연합)	2021년 04월 가입
VBA (가치 측정 표준 개발 연합)	2021년 03월 가입
SBTi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2020년 11월 가입
PCAF (탄소회계금융협회)	2020년 11월 가입
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	2020년 9월 가입
UNEP FI PSI (UN 지속가능보험원칙)	2020년 2월 가입
UNEP FI PRB (UN 책임은행원칙)	2019년 9월 가입
TCFD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2018년 9월 가입
UN Global Compact	2008년 5월 가입
UNEP FI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2008년 1월 가입
CD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2007년 3월 가입



A large wind turbine dominates the foreground, its dark silhouette contrasting against a vibrant sunset sky.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casting a warm, golden glow through the clouds. In the background, a line of smaller wind turbines stretches across a grassy field.

Do the 'Green' Thing  
for a Wonderful World